

현대소설의 설문대할망설화 수용 양상

김동윤*

<차례>

- I. 들머리
- II. 못다 이룬 꿈: 오성찬의 「구룡이 삼촌 연보」
- III. 영원히 사는 죽음: 이명인의 『집으로 가는 길』
- IV. 새로운 세계의 열람: 고은주의 『신들의 황혼』
- V. 설문대할망 설화 수용의 의미와 과제
- VI. 마무리

국문요약

이 연구에서는, 제주의 대표적인 설화인 설문대할망설화를 현대소설에서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설문대할망설화가 구조로서 참여한 작품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대상 작품은 오성찬의 단편 「구룡이 삼촌 연보」(1986), 이명인의 장편 『집으로 가는 길』(2000), 고은주의 장편 『신들의 황혼』(2005)이다. 논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구룡이 삼촌 연보」는 오백장군설화(화석설화)와 결합되지 않은 설문대할망설화(거녀설화)가 수용되었으며, 연륙실패 모티프를 적극 활용한 작품이다.

둘째, 『집으로 가는 길』에서는 오백장군설화가 포함된 설문대할망설화가 다른 제주신화들과 더불어 큰 폭으로 변형되어 수용되었다.

셋째, 『신들의 황혼』에서도 확장된 설문대할망설화가 수용되었는데, 설화에서 새로운 세계의 열람을 유의미하게 포착해낸 작품이다.

넷째, 현대소설의 설문대할망설화 수용 양상을 보면 그 원형이 거녀설화에

*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국한되며 연륙 실패 모티프가 설화의 핵심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다섯째, 개발지상주의에 대한 경고, 생태주의적 인식 등이 설문대할망설화를 지금-여기에 걸맞게 문학적으로 재현하는 방식이라고 본다.

주제어 : 설문대할망설화, 거녀설화, 화석설화, 연륙 모티프, 생태주의, 오성찬의 「구룡이 삼촌 연보」, 이명인의 『집으로 가는 길』, 고은주의 『신들의 황혼』

I. 들머리

설문대할망설화는 자청비설화 등과 함께 제주의 대표적인 설화다. 하지만 현대소설에서 설문대할망설화가 삽화(挿話)로서의 설화를 넘어서 한 편의 소설 전체 구조로서 수용되고 있는¹⁾ 작품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필자가 과문한 탓인지 모르지만, 오성찬의 단편소설 『구룡(九龍)이 삼촌 연보(年譜)』(1986),²⁾ 이명인의 장편소설 『집으로 가는 길』(2000), 고은주의 장편소설 『신들의 황혼』(2005)³⁾ 정도가 작품의 전체

1) 문성숙은 소설에 등장하는 설화들을 유형화하여, 하나의 설화가 한 편의 구조로서 참여하고 있는 경우를 ‘구조로서의 설화’, 설화의 화소가 소설 속에 다양하게 삽화로 등장하면서 소설의 부분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경우를 ‘삽화로서의 설화’로 명명한다. 문성숙, 『제주설화의 현대문학적 변용』, 『제주문학』22(제주문인협회, 1992), 130~131쪽.

2) 문성숙은 위의 글에서 『구룡이 삼촌 연보』의 설문대할망설화가 “단편적인 화소”이기 때문에 “작품 구조나 줄거리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141쪽)면서 ‘삽화로서의 설화’로 보았으나, 필자는 ‘구조로서의 설화’로 기능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설문대할망설화가 주요 인물의 생애에 대한 해석에 요긴하게 활용됨으로써 주제의 구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3) 오성찬의 「구룡이 삼촌 연보」는 『소설문학』 1986년 11월호에 처음 발표되었으나 여기서는 작가의 창작집 『단추와 허리띠』(지성문화사, 1988)에 수록된 것을 텍스트로 삼았으며, 이명인의 『집으로 가는 길』과 고은주의 『신들의 황혼』은 각각 2000년과 2005년에 문이당에서 간행된 초판을 텍스트로 삼았다. 이 논문에서 이들 작품을 인용

구조 속에서 설문대할망설화를 수용한 소설이 아닌가 한다. 여기서는 이 세 작품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의 설문대할망설화 수용 양상을 살필 수밖에 없다. 비록 세 작품이긴 하지만 설화 수용 방식이 각기 달리 나타나고 있기에 이들을 통해 수용 양상을 살피는 것은 유용한 작업이라고 본다.

그런데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설문대할망설화의 내용에 대해 전제해 둘 사항이 있다. 필자는 “설문대할망 이야기는 거녀전설(巨女傳説)이고, 오백장군 이야기는 화석전설(化石傳説)”로서, “이 두 가지 전설은 별개의 것”이라는 현용준의 견해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이다. 현용준은 그 두 가지가 원래 별개의 전설이었는데 모씨가 오백장군전설의 “옛날에 한 할머니가 아들 오백형제를 데리고 거기에 살고 있었다.”(『제주도 설화집』, 제주관광안내소출판부, 1959)라는 서술을 “옛날에 설문대할머니가 아들 오백을 거느리고 살았다.”(『남국의 설화』, 박문출판사, 1964)로 바꾸어 기술하면서 하나의 설화로 둔갑했음을 지적했다.⁴⁾

결국, 설문대할망설화는 거녀설화가 원형이며, 1960년대 중반 이후에 오백장군설화와 인위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물론 오백장군

할 때에는 () 속에 쪽수만 표시키로 한다.

4) 현용준, 『설문대할망과 오백장군』, 『제주도 사람들의 삶』(민속원, 2009), 74~78쪽. 현용준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경계하였다.

“이처럼 같은 제보자의 제보를 불과 5년 사이에 ‘어떤 할머니’를 ‘설문대할망’으로 바꾸어도 되는 것인가? 이렇게 바꾼 의도가 무엇인지 나는 모른다. 이렇게 전설의 내용을 바꾸는 것을 그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엔 전설의 조작이요, 학술적 범죄다. 이렇게 ‘설문대할망’으로 조작된 책을 읽는 사람은 그것이 전설의 진실이라 믿고, 입에서 입으로 번져 모든 사람이 그렇게 믿어버릴 것이 아닌가? 이런 믿음이 오래 계속되면 학계이나 공공사회에나 엄청난 일이 벌어질 우려가 있다. 사실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75쪽)

이야기가 포함된 설문대할망설화가 널리 알려질 때까지는 상당한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였다고 본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상황에서 이를 어찌 해야 할 것인가. 이미 되돌리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린 것 같다. 현대소설에서의 수용 양상을 보더라도 오백장군설화와 결합된 설문대할망설화가 점차 그 위력을 발휘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II. 못다 이룬 꿈: 오성찬의 「구룡이 삼촌 연보」

「구룡이 삼촌 연보」는 이른바 마을 시리즈 기획 출간과 관련된 오성찬의 작품이다. 오성찬은 1986년부터 제주도내 여러 마을을 취재하여 17권의 『제주의 마을』 시리즈를 간행하는 작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는바, 이 작품은 그런 과정에서 얻어진 것으로 보인다.⁵⁾ 작중인물인 화자 ‘나’와 사진작가 ‘구만’은 작가 오성찬처럼 마을의 인물과 역사를 취재하는 일을 하고 있다.

① ‘나’와 구만은 한상섭을 대동하고 구룡이 삼촌 행적을 찾아 그의 부인인 고현아 할머니 집을 방문했다.

② 상섭은 인근의 대흥리 포구를 만드는 데 삼촌이 기여했다고 하여 ‘구룡이 선창’이라 부른다는 사실을 전언했다.

③ 마을의 간이음식점에서 술 마시던 중 설문대할망이 다리 놓다가 중단한 흔적이라고 전해지는 곳을 보았다.

④ 양모씨는 구룡이 삼촌이 선창 만든다며 돈만 거둬먹고서 이룬 건 없

5) 오성찬 연보에는 1986년 7월에 『동서문학』에 발표한 「표해」가 ‘마을 이야기(1)’, 같은 달에 『한국문학』에 발표한 「단추와 고삐 허리띠」가 ‘마을 이야기(2)’, 그리고 「구룡이 삼촌 연보」가 ‘마을 이야기(3)’으로 각각 명시되어 있다. 『오성찬 문학 선집』 11(푸른사상, 2006), 386쪽.

다고 비판했다. 독립운동을 한다고도 했지만 면서기도 했고 학교도 짓는다면서 벌려놓기만 했다는 것이다.

⑤ 구룡이 삼촌의 호적 등본을 떼었더니 창씨개명을 했던 흔적도 나왔다.

⑥ 독립운동 전과도 있고 조선정신을 강조하던 투사형 인물이 왜 그랬을까 의구심이 들었다. 일제에 고문당하고도 끝내 굽히지 않았던 송산과 대비됐다.

⑦ 선창에 앉아 구룡이 삼촌 생각을 하던 ‘나’는 설문대할망의 다리 놓는 장면을 떠올렸다.

⑧ ‘나’는 방과제에서 마을 쪽으로 걸어가는 사내의 뒷모습을 보았는데, 사내는 미워하기에는 너무 지쳐 있었다.

개요에서 보듯이, 선각자요 독립운동가로 알려진 구룡이 삼촌의 생애를 추적하다 보니 부정적인 행적도 적잖이 드러나게 되어 조사자가 혼란에 빠진다는 내용의 소설이다. 구룡이 삼촌이 일제말기에는 면서기를 하고 창씨개명도 했으며, 말년에는 아내와 사별한 지 1년도 안 되어 재혼한 사실도 확인되었으니, 이 인물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나’는 도무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 개요의 ③과 ⑦에서 보듯이, 작가는 설문대할망설화를 이 인물에 대한 이해의 과정에서 활용한다. 구룡이 삼촌의 이력을 설문대할망의 행적과 병치하여 연관시킴으로써 진실을 모색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저기가 설문대할망의 전설이 있는 곳이야……”

상섭 형이 술기가 올라 눈가가 불긋한 얼굴을 쳐들고 어둔 해변을 가리켰다. 가는 곳이 바다 멀리까지 뻗어나간 곳, 그게 설문대할망이란 거인이 육지까지 다리를 놓는 공사를 하다가 중단한 흔적이라는 것이었다. 제주 사람이면 그만한 전설은 누구나 알고 있었다. 한라산을 베개하고 바닷물에 빨래하던 설문대할망, 섬사람들에게 명주 백 동만 모아 오면 옷을 해 입고

육지까지 다리를 놓아 주마 했으나 끝내 한 동을 못 채워 그 계획이 무산됐다는 한이 서린 장소, ‘허천 바당이란 말이 있주만 들이쳐도 들이쳐도 메워 지질 않더라’던 할머니의 허망한 표정이 떠올랐다.(41쪽)

인용문을 보면 이 설문대할망설화에는 오백장군 이야기가 전혀 끼여 들지 않고 있음이 확인된다. 거인 할머니가 육지까지 다리 놓는 작업을 하다가 섬사람들이 약속한 옷감을 다 마련하지 못하는 바람에 공사를 중단했다는 본래의 거녀설화만이 소설에 수용되었다. 이 설화는 선창 공사를 주도했던 구룡이 삼촌의 이야기 다음에 배치되었다. 삼촌과 할망 둘 다 사람들의 편의를 위하여 바다를 메우는 작업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리고 끝내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닮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할망의 ‘허망한 표정’을 통해 삼촌의 얼굴에 나타났을 그런 표정을 떠올리고 있음은 물론이다.

“저길 보니까 꼭 삼태기로 흙을 떠다 부은 것 같게 보이기는 하네요. 설문대할망이 다리를 놓다 말았다는 말마따나……”

돌아앉아 한참 잠자코 있던 구만 씨가 말했다. (…) 한 무더기, 또 한 무더기…… 바위 무더기들은 수평선 쪽을 향하여 줄줄이 이어져 있었다. 흰 시선을 돌려 한라산 쪽을 보았다. 산엔 이미 저녁 그들이 서서히 다기들고 있었다. 거기서 한 거인 할머니가 일어나 대단한 다리로 성큼성큼 바닷가로 다가왔다. 그녀가 팔짱에 삼태기를 끼고 있는데, 넘치게 담은 그 삼태기에서 흙이 새어 산기슭 여기저기에 붕긋붕긋 흩어졌다. 거대한 가랭이가 산야를 지나와 버리자 어느새 야산에는 봉우리들이 여럿 생겨났다. 해변까지 걸어 온 그녀가 삼태기를 허리에 낀 채 먼 수평선으로 시선을 보냈다. 그 시선이 독수리의 그것처럼 날카롭고 원한에 차 있었다. 한 삼태기 흙을 바다에 붓고 돌아섰을 때 그녀는 호물호물 구름으로 흩어져 날아갔다. 다만 그 원한 서린 독수리의 시선만이 남아서 한참이나 날선 수평선에 꽂혀 있었다.(49쪽)

『구룡이 삼촌 연보』에서 설문대할망설화가 두 번째로 활용된 부분이다. 할망의 구체적인 작업 광경이 ‘나’의 상상을 통해 형상화되어 있다. 삼태기로 흙을 퍼 나르며 연륙 공사를 하다가 그만두는 상황을 맞게 되면서, 날카롭고 원한에 찬 시선을 수평선(육지부) 쪽으로 보낸다는 내용이다. 바다에서 행한 미완의 공사를 주도했다는 면에서 설문대할망과 구룡이 삼촌은 공통점이 있다. 비록 미완의 공사였지만 그것은 도민과 주민에게도, 할망과 삼촌 스스로에게도 한으로 남았음을 작가는 말한다. 못다 이룬 꿈에 대한 원한이요 회한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소기의 결실을 맺지는 못했지만, 바다를 메워 선창을 만들고 다리를 놓는 작업을 추진할 때의 진실성만은 믿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메시지도 읽을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오성찬의 『구룡이 삼촌 연보』에서는 거녀설화로서의 설문대할망설화가 수용되었고, 연륙 실패 모티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설문대하르방이나 오백 아들이 등장하는 설화는 원형이 아님을 이 소설을 통해서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으며, 연륙 실패 모티프가 못다 이룬 꿈을 형상화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음이 확인된다는 것이다.

Ⅲ. 영원히 사는 죽음: 이명인의 『집으로 가는 길』

이명인의 장편소설 『집으로 가는 길』에는 제주의 많은 신들이 변신하여 등장한다. “당찬 농사의 여신 자청비와, 이 땅에서 후(後)보름을 살고 서천꽃밭 사라대왕 막내딸과 선(先)보름을 살던 문국성 문도령, 이승과 저승을 오가며 저승길 길라잡이를 하던 차사 강림, 서흥동 당가름에 눌러살던 고상국, 그 외에 서귀포 본향당(本鄉堂) 주인인 바람웃도, 거

구인 설문대할망 등”이 작가가 만든 “인간의 옷을 입고 세상에 나들이”⁶⁾ 나온 작품이다. 말하자면 설문대할망설화만이 아니라 자청비설화,⁷⁾ 차사본풀이, 서귀포본향당신화 등 여러 제주설화가 뒤섞이어 대폭 변용된 소설이다. 이 작품은 10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는데, 각 장별 개요는 다음과 같다.

① 큰아들 강림이 해너그림을 갖고 오자 문홍로는 놀랐다. 이후 아내 사라가 수영장 갔다가 응급실에 실려간 데 이어, 둘째아들 유림이 바다에서 죽다가 살아났는데, 마침 주방장이 익사했다.

② 30여 년 전 홍로와 관계 맺은 청비는 홀로 남아 상국의 집에서 채운을 낳고서 물질 하다가 죽었다. 훗날 채운이 해너를 그렸는데 바로 청비의 모습이었다.

③ 홍로의 큰아들 강림은 제주도의 채운 집에서 목계 되었다. 채운은 무병에 걸려 이혼한 후 귀향한 여자였다.

④ 제주에 간 강림이 돌아오지 않자 홍로의 근심은 깊어졌다. 홍로 아버지 제민의 제삿날 강림이 돌아오고 제사 지내는데 해너그림 액자가 떨어져 깨진 유리에 홍로가 손을 다쳤다. 어머니 설씨는 그날 밤 무서운 꿈을 꾸었다.

⑤ 채운과 강림이 급속도로 가까워지더니 강림이 청혼한 후 성 관계를 가졌다. 카페를 운영하던 채운이 화방을 개업했는데, 상국은 계속 꿈에 시달리며 불안해한다.

⑥ 서울 간 강림이 소식이 없는 가운데 초조해진 채운에게 전 남편 수영이 아들 우진과 함께 찾아와서 재결합하자고 하니 거절당한다.

⑦ 강림이 귀경해 꼭 결혼하겠다고 하니 홍로는 허락하려 하지만 사라는 연상의 이혼녀라 절대 안 된다고 했다.

6) 이명인, 『작가의 말』, 『집으로 가는 길』(문이당, 2000).

7) 이명인의 『집으로 가는 길』에서의 자청비설화 수용에 대해서는 김동윤, 『현대소설의 제주설화 수용 양상 연구—자청비설화를 중심으로』, 『비평문학』31(한국비평문학회, 2009)에서 검토되었다.

⑧ 강림이 제주에 돌아와 재회한 후, 채운은 서울 가서 먼발치에서 우진을 보고 왔다. 우진 할머니가 죽자 수영이 출장 가는 동안 우진이 맡겨지고, 채운이 몸의 변화를 느낀다.

⑨ 설씨의 외병 중에 홍로는 제주에서 제민의 시신을 묻은 포제단을 찾아가나 그곳이 굴밭으로 변한 걸 보고 야반도주하던 일을 떠올린다. 그는 채운이 애까지 있음을 알고 강림에게 포기를 종용하다가 귀가했다. 설씨가 죽어 유골 뿌리려고 다시 제주를 찾은 홍로는 채운의 친모 얘기를 들었다.

⑩ 홍로는 상국을 만나 채운이 청비의 딸임을 확인하고, 청비 묘소에 함께 참배했다. 강림이 파리로 떠난 가운데 홍로가 청비의 묘비를 세운다. 남극노인성 보러 간다는 홍로를 따라나선 채운은 뱃속에서 자라는 아기의 존재를 생각했다.

청비와 문홍로의 사랑과 이별, 그들의 2세인 채운과 강림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 운명적으로 그려진 작품임을 알 수 있다. 자청비는 ‘청비’, 문도령은 ‘문홍로’, 서천꽃밭 막내딸은 ‘사라’, 강림차사는 ‘강림’, 고산국은 ‘상국’, 바람웃도는 ‘풍도’ 등으로 제주설화 속의 인물(신)들이 현대적으로 변용되어 등장한다.

작중인물 중에서 문홍로의 어머니인 ‘설씨’가 바로 설문대할망에서 차용한 인물이다. 소설 속에서 설씨는 체격 조건이 거너로 나오는 건 아니나, 그렇다고 범상한 인물인 것도 아니다.

팔순이 넘은 어머니 설씨는 한사코 홍로와 같이 살기를 마다했다. 설씨는 굴린 달같은 병아리 되고, 굴린 사람은 쓸모가 있다는 속담을 신조인지 위안인지로 입에 달고 살았다. 그래서 홍로가 조금이라도 피병을 부릴라치면 작대기에 들어서 문밖으로 내몰았다. 그러더니 홍로가 결혼을 하자 탄살림나라고 냉정하게 말하고는, 팔순이 넘도록 혼자 끼니 해먹으며 노인정에서 인형눈을 붙였다.(14~15쪽)

설씨는 남편이 죽자 지체 없이 제주를 떠난 후에, 객지에서 아들을 자수성가하도록 이끌면서 자신은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꾀꾀하게 살아가는 인물로 그려진다. “워낙 성품이 바지런하고 강단이 있”(159쪽)였으며 “당당한 품모”(229쪽)를 지녔다는 서술에서도 설문대할망과의 연관성을 찾을 수 있다. 창조신으로서의 설문대할망의 역할을 부분적·제한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소설에서 작가는 거녀설화로서의 설문대할망설화만이 아닌, 오백장군설화(화석설화)와 결합되어 확장된 설문대할망설화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것은 설씨의 가족 이야기를 통해 확인된다.

설씨의 남편 제민은 중산간에 살면서 사냥을 주로 하던 인물로 나온다. “워낙 구척장신에 산으로 들로 바람처럼 싸돌아다니는 제민”(35쪽)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설문대하르방에서 빌려온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설씨와는 달리 제민은 거구로 그려진 점도 주목된다.

제민은 평생 가난했다. 물려받은 땅도 없었거니와, 그나마 있던 뜰땅 조금 마련한 것도 손톱이 닳도록 일하고, 다리에 가래뿔이 서도록 산으로 들로 쪼다녀서 마련한 것이었다. 딱히 사농바치(사냥꾼)랄 것도 못 되는 일거리로 겨울을 나고 여름엔 버섯을 채취하는 일이 전부였다. 그도저도 안 되면 오랜 친구인 기철이네 뱃일에 짬짬이 끼어서 풀칠이나 하고 살았다.(222쪽)

확장된 설화에 나오는 설문대할망의 가족처럼 설씨의 가족들도 먹고 살기가 힘들었다. 넉넉지 못한 살림살이였다. 설씨는 남편 제민이 죽자 아들을 시켜 시신을 포제단에 암매장하고서는 빛에 쪼들린 형편을 타개하고자 야반도주하여 제주섬을 떠나버렸다. 그러고선 고향을 등지고 서울에서 살았다. 아들 홍로가 30여년 만에 암매장 터를 찾아가 뼈를 수습하려고 했지만, 제민의 흔적은 완전히 사라지고 없었다. 설화의 설문대

하르방은 죽 속에 뼈를 남겼지만 소설의 제민은 뼈마저도 추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다.

제민의 흔적을 전혀 찾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설씨는 눈에 띄게 쇠약해지더니 “미련 없이 이승을 버리고 말았다.”(299쪽) 화장한 설씨의 유해는 고향인 제주섬의 한라산 남녘에 뿌려진다.

홍로는 항구에서 막바로 택시를 잡아 지장샘까지 갔다. 그곳에서 동산으로 가파른 길을 휘이휘이 올랐다. 굴밭으로 변한 옛 포제단을 지나 한참을 더 올라가자 덤불숲이 나타났다. 홍로는 그곳에 서서 한숨을 내쉬고 상자 뚜껑을 열었다. 홍로는 설씨에게 오랜만에 돌아온 고향집을 구경이라도 시키듯 상자를 들어 서귀포 시내 쪽을 향해 들었다. 그리고 설씨의 한이 서렸을 뺏가루를 아래쪽을 향해 날렸다. 마침 한라산 능선을 타고 내려오는 바람을 타고 설씨는 하얗게 날아갔다.(231쪽)

설씨는 죽어서 뺏가루가 되어 귀향하고는 제주섬의 한 부분이 되었다. 제주섬에 영원히 살게 된 셈이다. 이에 견주어 본다면 설문대할망이 물장오리에 빠져 죽었다는 설화의 결말 역시, 사라져버렸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할망이 곧 제주섬에 녹아들으로써 섬 자체가 되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듯 이명인의 『집으로 가는 길』에서는 오백장군설화가 포함된 설문대할망설화가 수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설문대할망(설씨)의 죽음이 종말이나 실종이 아니라 섬의 일부가 되어 영원히 살게 된 것임을 의미화하였다는 점은 이 작품이 지닌 의의의 하나로 꼽을 수 있겠다. 여러 설화가 함께 수용되고 그 변용이 매우 큰 폭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작정하여 유심히 살피지 않으면 설화의 흔적을 포착하기가 쉽지 않은 작품이기도 하다.

IV. 새로운 세계의 열림: 고은주의 『신들의 황혼』

고은주의 장편 『신들의 황혼』은 제주4·3의 비극과 설문대할망설화, 인천상륙작전과 연희고지전투, 1960년대의 부산과 2000년대의 서울·제주·오사카 등을 오가며 현대사와 가족의 의미 등을 포착해낸 작품이다. 신화와 역사와 현실을 넘나들고 과거와 현재를 이어놓으면서 공간과 인식의 폭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2000년대 이후 침체된 4·3소설에 가능성의 싹을 보여주었다고 평가된다. 이 작품은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시점을 교차하는 가운데 모두 24개의 장으로 이루어졌는데, 장별 개요는 다음과 같다.

- ① 삼천 병사: ‘그(아버지)’는 해병대 삼천병사의 일원이 되어 1950년 9월 1일 제주항 산지부두에서 LST를 타고 한국전쟁에 참전했다.
- ② 섬지코지: 30대의 미혼인 ‘나’는 현의 아이를 임신했음을 알았다.
- ③ 바람의 뿌리: LST에서 ‘그’는 4·3의 광풍을 회상했다.
- ④ 인연: ‘나’는 오사카에서 유미언니와 작은외할아버지를 만나 외할아버지가 4·3 때 희생됐음을 알았다.
- ⑤ 어디로 가는가: ‘그’는 진해에서 해병훈련을 받고 인천상륙작전에 투입됐다.
- ⑥ 오사카 생야구(生野區): ‘나’는 혈육에 집착하는 작은외할아버지를 보며 가족의 의미를 생각했다.
- ⑦ 적색 해안: ‘그’는 유엔군 제7함동 상륙기동부대의 일원으로 폐잔병수색 작전에 투입된 데 이어 104고지와 연희고지 점령에 동원됐다.
- ⑧ 돌 죽은 밭: ‘나’는 제주도에서 엄마를 만나 4·3 등 과거사에 대해 묻고는 임신 사실을 알렸다.
- ⑨ 왜 가야만 하는가: ‘그’는 경인 지구 작전을 마친 뒤 인천항으로 돌아왔다. 가족을 위해 견뎌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 ⑩ 관습: ‘나’는 헌법보다 관습이 앞서는 현실에 대해 원이 선배와 대화했

다. 아이의 아버지를 데려오라는 엄마에게 ‘나’는 아이를 낳을지 말지를 물었다.

⑪ 숨비소리: 4·3 때에 아버지 잃은 ‘그녀(엄마)’는 오해받지 않으려고 마을일에 적극 참여했다.

⑫ 타인의 가족: 결혼 안 한다는 ‘나’의 말에 아버지는 뺨을 때리고는 전쟁기념관을 함께 다녀오면서 가족을 위해 살아야했던 얘기를 했다.

⑬ 새로운 적: 중공군이 개입한 가운데 ‘그’의 두 형도 입대했다. ‘그’는 살아남아 전쟁의 배경과 진행과정과 전망을 아는 지식인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⑭ 눈꽃: ‘나’는 원이 선배에게 아버지의 외도로 맞게 된 셋째 언니의 등장이 아버지에 대한 혐오감을 갖는 요인이 됐다고 밝혔다.

⑮ 패잔병의 행진: 1950년 12월 ‘그’의 부대는 아군과 피난민의 철수를 돕다가 미군 수송기로 부산항에 가서 LST를 탔다. 피난민들을 통해 삶의 의지를 다졌다.

⑯ 이복 언니: ‘나’는 이복언니와 대화하면서 가족들의 과거, 4·3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나’는 아버지가 원하는 바를 충족시키는 삶을 살고 싶어 했음을 깨달았다.

⑰ 도돌이표: ‘그’는 1951년 장단 지구에서 후퇴와 반격을 반복했다. 그러던 중 두 형의 전사 소식을 듣고는 반드시 살아서 귀향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⑱ 말할 수 없는 것들: ‘나’는 아이에 대한 욕망이 커지면서, 임신을 숨기기 위해 대학원에 등록할 계획을 세웠다. 청혼하는 원이 선배에게 ‘나’는 임신사실을 알렸다.

⑲ 지삿개: 대구 육군경리학교에서 교육받고 재무하사관이 된 ‘그’는 삶의 재건을 위해 돈을 모았으며, 어릴 때 보았던 ‘그녀’와 가정을 꾸렸다.

⑳ 달맞이 고개: 가족행사 때문에 부산으로 간 ‘나’는 아버지의 흔적으로 자신이 살아있음을 깨닫고, 가족에 대한 맹목적이고도 순수한 열망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㉑ 집: ‘그’는 처자식이 생기면서 세상에 대한 강한 욕구를 갖게 됐다. 제주를 떠나 부산에서 의류업으로 돈을 벌며 조카들까지 거두기로 했다.

② 테란의 드랍슝: 어머니의 칠순잔치를 맞아 모이는 가족들을 보며 ‘나’는 아버지의 과거와 뱃속의 아기 등 설명할 수 없어도 이해하게 되는 이상한 느낌을 갖게 됐다.

③ 칠 남매: ‘그’와 ‘그녀’는 칠남매를 키우며 최선을 다해 살았다고 생각했다.

④ 물장오리: 건강을 잃어가는 어른들을 보면서 ‘나’는 설문대할망전설을 떠올렸다. 가족사진을 찍으면서 뱃속 아기에게 고마움을 느꼈다.

이 장편에서 주인공 ‘나’는 법대를 졸업하고 국책은행에 근무하는 서른세 살의 미혼 여성이고, ‘그’는 ‘나’의 아버지, ‘그녀’는 ‘나’의 어머니다. 부산에 터 잡아 살고 있는 이들의 고향은 제주도이며, ‘그’와 ‘그녀’는 4·3을 체험한 세대다.

작수 장에는 ‘나’의 현재 삶이 그려져 있다. ‘나’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면서 자신을 둘러싼 상황에 대해 문득 돌아보는 기회를 갖는다. 아기를 낳을지 말지 고민하던 와중에 떠난 오사가 여행에서 유미 언니와 작은외할아버지를 만난다. ‘나’는 그들을 통해 4·3과 한국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파란만장하게 전개된 가족의 과거사를 알게 되고, 그 가족이라는 굴레 안에 자신도 존재하고 있음을 깨닫는다.

홀수 장에는 4·3의 광풍을 겪고 해병대 4기로 한국전쟁에 참전하여 인천상륙작전에 투입된 ‘그’가 치열한 전쟁에서 우여곡절 끝에 살아남고서 결혼하여 가정을 이끌어가는 과정이 중심축을 이룬다. 전장에서 죽음에 대한 공포와 허기, 꿈과 현실의 경계가 지워지는 힘든 순간에 이르렀을 때 ‘그’는 가족을 대신하여 그 자리에 서 있으며, 뒤늦게 입대한 두 형의 전사로 인해 자신이 유일한 아들이 되었음을 상기한다. 전쟁이 끝난 후 ‘그’는 처자식이 생기면서, 세상에 대한 맹렬한 욕구를 갖게 된다.

이와 같은 다층적 플롯은 소설의 이야기 소통구조를 자유롭게 열어준다. 소설 속의 인물들이 겪어온 역사와 현실의 문제를 다각적으로 인식하게끔 해주는 것이다. 작품의 전개를 조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구전되는 설문대할망설화와, 과거 질곡의 역사를 겪고 오늘의 풍요로운 현재를 만들어낸 아버지 세대의 삶, 역사에 대해 무관심한 현세대의 이야기를 교차하면서, 그들의 소통과 결합을 구조적으로 꺾하고 있다.⁸⁾

『신들의 황혼』에서 설문대할망설화는 화자 ‘나’가 어린 시절에 외할머니에게 흥미진진하게 이야기를 전해 듣는 형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1장이 시작되기 전, 2장과 3장 사이, 4장과 5장 사이, 6장과 7장 사이 식으로, 다시 말하면 짝수 장 다음에 모두 12회로 나뉘어 설문대할망설화가 배치되었다. 현재의 ‘나’가 예전에 외할머니에게 전해 들었던 설화를 떠올리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작품 속의 설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설문대할망은 한라산을 베개 삼아 누우면 다리가 관탈섬에 걸쳐지는 거인이었다.

㉡ 할망은 설문대하르방과 함께 살았다. 하르방이 고기를 몰아 할망의 하문에 가두는 방식으로 어획했다. 고기를 예워 잡은 곳이 섬지코지다.

㉢ 할망이 치마폭에 흙을 담아 여섯 번 오가며 섬을 만들었고, 일곱 번째 담아 온 흙으로 한라산을 만들었으며, 치마 사이로 샌 흙이 오름을 만들었다.

㉣ 할망은 한라산 위에 앉아서 오른발은 마라도에 왼발은 성산일출봉에 딛고 지귀도를 빨래판 삼아 치마를 빨았다.

㉤ 할망이 걸터앉기엔 한라산 끝이 뽕족해서 봉우리를 떼어 던진 것이 산방산이다.

8) 김수미, 『설화와 가족으로 소통시킨 역사와 현실』, 『영주어문』13(영주어문학회, 2007), 218~219쪽.

㉔ 성산포와 연결돼 있던 우도는 할망이 일출봉과 식산봉에 양다리를 걸쳐 오줌을 누자 떨어져 나가 섬이 됐다.

㉕ 성산일출봉에는 등경돌이 있고, '고지렛도'에 있는 모자 모양 바위는 할망이 썼던 모자이며, 큰 바위가 띄엄띄엄 솟은 곳은 할망이 술을 걸어 밥을 해먹은 바위이다.

㉖ 할망은 사람들에게 육지와 연결하는 다리를 놓아주는 조건으로 명주 백동이 드는 명주옷을 지어달라고 요구했으나, 명주 한 동이 모자라 다리를 놓다가 그만뒀다.

㉗ 할망에게 오백 아들이 있었는데, 할망이 밖으로 양식을 구하러 간 사이 하르망이 죽을 끓이다가 실수로 술에 빠져 죽었다.

㉘ 막내는 아버지를 먹은 형제들과 함께 살 수 없다며 홀로 울다가 외돌개가 됐고, 형들도 슬피 울다가 오백장군이 됐다. 할망은 피눈물을 쏟았는데 한라산 칠쭉꽃이 그 흔적이다.

㉙ 흥년이 들자 할망은 밤에 사람들 몰래 멀리 떠났다.

㉚ 할망은 물장오리에 들어갔다가 물속으로 사라졌다.

위의 개요를 볼 때 작품에 수용된 설화는 오백장군설화와 통합됨으로써 확장된 설문대할망설화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설화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어울리도록 짜임이 비교적 가지런하게 정리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설화는 과거 '그'의 이야기와 현재 '나'의 이야기가 각각 진행되는 것과 더불어 흥미롭게 전개된다.

설문대할망설화는 장 사이에 독립된 형식이 아닌, 작품 속의 '나'와 관련된 현실에서 설화의 내용을 떠올리는 방식으로도 활용된다.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는 과거(설화)와 현실이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차갑고 몽푹하고 미끄러운 기구가 내 몸의 중심으로 미끄러져 들어오는 순간, 느닷없이 설문대 할망이 떠오른다. 섬지코지 전설의 그 외설적인 부분을 이야기해 주었을 때 현은 침대가 들썩일 만큼 웃었다. 돌이켜보면 이

난감한 상황은 어쩌면 그날 그 침대에서 잉태되었는지도 모를 일이다.(28쪽)

‘나’가 산부인과에 갔을 때의 상황이다. 이 뒤에 나오는 작품의 내용은 개요 ㉠의 설화다. 설문대할망이 자신의 허문을 이용해 설문대하르방과 함께 고기를 잡는다는 설화가 외할머니로부터 손녀(‘나’)에게 전달된다. 작품의 말미에서도 설문대할망설화가 현실의 내용 속에서 떠올려진다.

나는 그때 외할머니에게서 노화의 잔인함과 죽음의 그림자를 보고 싶지가 않았다. 맑은 정신을 잃어버린 외할머니가 아니라 설문대 할망 전설을 들려주던 외할머니만을 기억하고 싶었던 것이다.

최근에 다시 찾아본 설문대 할망 전설에는 할망의 최후가 여러 가지로 전해지고 있었다. 죽을 끓이다가 가마솥에 빠져 죽은 이가 설문대 하르방이 아니라 할망이라는 이야기가 가장 많았고 물장오리에 빠져 죽었다는 이야기가 그다음으로 많았으며 흉년에 어디론가 떠나 버렸다는 이야기가 가장 적었다.

어쨌든 모든 이야기에는 끝이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물장오리의 결말에는 또 다른 끝이 덧붙여 있는 경우가 있었다. 밀이 터져 있는 물장오리는 바다 속까지 뚫려 있어서 설문대 할망이 그 물을 통해 고향인 용궁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였다.(267~268쪽)

설문대할망설화로 연결된 ‘나’와 외할머니의 관계가 잘 이해되는 부분이다. 아울러 설문대할망의 최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설이 소개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특히 물장오리에 빠진 뒤의 이야기가 덧붙여진 설화에 작가가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장오리가 바다로 연결되어 할망이 용궁으로 갔다는 내용은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사실을 뜻한다. “일단 그 물에 발을 담그고 몸을 담그면 (...) 상상하

기도 힘든 더 큰 세계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속삭임”(268쪽)을 듣는 것이다. 이는 작품의 제목으로 활용된 바그너의 오페라 『신들의 황혼』과도 연결된다.

바그너의 오페라가 생각나는걸. 신들의 황혼…….

그 오페라도 북유럽 신화의 라그나뢰크가 모티브였어. 신들과 인간 세계의 종말을 다룬 얘기지. 육지가 바다에 잠겨 세계는 멸망하지만 마침내 바다 속에서 새로운 육지가 떠오르는데, 라그나뢰크가 말하는 신들의 운명은 바로 그것일 거야. 새로운 세계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종말을 받아들이는…….(198~199쪽)

설문대할망의 정신은 ‘새로운 세계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종말을 받아들이는’ 데에 있다는 것이 작가의 생각이다. 따라서 여기서의 종말은 끝이나 사라짐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의 열림이요 시작이다. 이 소설은 이처럼 설문대할망설화에서 새로운 세계의 열림을 유의미하게 포착하여 제시했다는 면에서 주목되는 작품이다.

V. 설문대할망 설화 수용의 의미와 과제

이상에서 고찰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현대소설에 수용된 설문대할망설화의 양상을 통해 유의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설화의 원형에 대한 추정이 가능하고 설화의 핵심 모티프에 대한 사항도 짚어볼 수 있다.

먼저, 설화가 점차 원형에서 벗어나면서 확장 수용되어가는 양상을 가늠해 볼 수 있다. 현용준이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설문대할망설화의 경우 처음에는 거녀설화 상태로만 존재했다가 나중에 화석설화와 통합

되었음이 현대소설에 수용된 양상을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1960년대에 인위적으로 오백장군설화가 설문대할망설화에 통합되어 기록되긴 하였지만, 1980년대 중반까지도 그것이 일반화되지는 않았음을 오성찬의 『구룡이 삼촌 연보』를 통해 추정할 수 있다. 제주 출신인 오성찬(1940년생)이 어려서부터 접하였던 설문대할망설화는 오백장군설화와 무관한 거녀설화였음을 소설의 내용에서 미루어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⁹⁾ 반면 제주 출신이 아니면서 좀더 젊은 세대 작가인 이명인(1960년 전주 출생)과 고은주(1967년 부산 출생)는 문헌자료에 더 많이 의존하여 설화를 수용하였을 것이 틀림없다. 1990년대 후반부터 제주에 거주했던 이명인이나 부모의 고향이 제주인 고은주도 직접 설문대할망설화를 전해 듣기는 했을 터이지만 그것을 창작에 활용하는 과정에서는 관련 문헌자료를 애써서 두루 찾아보았을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오백장군설화와 결합하여 확장된 설문대할망설화를 수용했음은 당연한 결과라고 본다. 작가로서는 더욱 풍성하고 흥미 있는 화소를 담고 있는 확장된 설화에 자연스럽게 눈길을 돌렸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설문대할망설화의 핵심이 연륙 실패 모티프임을 현대소설의 수용 양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오성찬의 『구룡이 삼촌 연보』에서는 연륙 실패 모티프가 별다른 여파를 거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삼촌의 마무리 못한 선창공사를 할망의 중단된 연륙작업과 직접 연계시킨 것이 그것이다. 이명인의 『집으로 가는 길』에서는 부녀관계의 불완전한 정립이 설화의 연륙 실패 모티프를 떠올리게 한다. 마침내 흥로와 채운이 부녀지간임이 확인되었지만 아직 온전한 부녀관계를 이루

9) 제주 출신의 1948년생 작가인 고시홍의 단편소설 『해야 솟아라』(1987)에도 설문대할망설화가 삽화로 나오는데, 그 내용은 『구룡이 삼촌 연보』와 마찬가지로 거녀설화에 국한되어 있다.

지는 못한 상태에서 소설이 끝나기 때문이다. 고은주의 『신들의 황혼』에서는 설문대할망설화 자체가 아버지의 과거 역사와 화자의 현재 상황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한다. 부모 형제와의 관계는 어느 정도 회복되었지만, 화자의 남편과 아이의 아버지가 실질적으로는 부재하게 되는 상황을 맞는다는 점에서 연륙 실패 모티프와의 상관성을 말할 수 있다. 이처럼 설문대할망설화의 연륙 실패 모티프는 궁극적으로 관계의 회복 지향 혹은 운명적 삶의 양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설문대할망의 다리 놓기 공사 중단의 의미를 우리는 올바르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다. 할망의 연륙 공사 중단은 지극히 당연한 귀결이다. 제주가 섬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 즉 그것이 제주의 숙명이요 운명이라는 사실이 그런 방식으로 표출되었다는 것이다. 작가들은 바로 이 점을 지금-여기의 현실과 관련하여 작품 속에 의미화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본섬과 부속도서 간을 케이블카로 연결하려고 한다든지, 한반도 지역과 이어주는 해저터널을 설치하려 드는 따위의, 제주 섬의 운명을 거스르는 천박한 개발지상주의에 대해 설문대할망의 매서운 호통을 들려주어야 한다.

특히 설문대할망의 창조 정신을 이 시대에 걸맞게 재현하려는 작가들의 노력이 절실하다. 그것은 생태주의적인 인식과도 연결될 수 있다고 본다. 할망이 제주섬을 창조하였다는 것은, 땅덩어리를 만든 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제주섬이라는 세상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음을 뜻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홍진숙이 그린 『탐라의 꿈』(2010)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망이 입김을 불어넣어 생명을 싹틔우는 모습이 경외감을 불러일으킨다. 마그마를 지하에서 뽑아 올리는 화산 폭발도 할망의 대자연 창조 행위의 과정임이 이 작품에서 감지된다. 할망이 제주섬의 대자연을

탄생시키기도 했거니와 할망이 제주섬 그 자체라는 점도 잘 담아낸 작품이다.



〈그림〉 홍진숙, 「탐라의 꿈」(2010)

VI. 마무리

이 연구에서는, 설문대할망설화를 현대소설에서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설문대할망설화가 구조로서 참여한 세 편의 작품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상에서 논의한 바를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오성찬의 『구룡이 삼촌 연보』(1986)는 오백장군설화(화석설화)와 결합되지 않은 설문대할망설화(거녀설화)가 수용되었다. 연륙실패 모티프를 적극 활용하여 못다 이룬 꿈을 그려낸 작품이다.

둘째, 이명인의 『집으로 가는 길』(2000)에서는 오백장군설화가 포함된 설문대할망설화가 다른 제주신화들과 더불어 큰 폭으로 변형되어 수용되었다. 영원히 살게 되는 죽음이 이 작품에서 의미화되었다.

셋째, 고은주의 『신들의 황혼』(2005)에서도 확장된 설문대할망설화가 역사와 현실을 주도면밀하게 연계시키면서 적극 수용되었다. 설화에서 새로운 세계의 열림을 유의미하게 포착해낸 작품이다.

넷째, 현대소설의 설문대할망설화 수용 양상을 보면 그 원형이 거너설화에 국한되며 1980년대까지도 거너설화로서의 설문대할망설화가 중심이었음이 파악된다. 또한 연륙 실패 모티프가 이 설화의 핵심임도 확인할 수 있다.

다섯째, 설문대할망설화의 창조정신을 올바르게 수용하려는 작가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개발지상주의에 대한 경고, 생태주의적 인식 등이 설문대할망설화를 지금-여기에 걸맞게 문학적으로 재현하는 방식이라고 본다.

한편, 설문대할망설화는 제주의 창조신화임에도 그 소설적 수용은 매우 더딘 것 같아 아쉽다. 설문대할망설화에서 배태되는 여러 가지 의미를 포착하고 현실에 유효적절하게 적용하는 다각적인 작업이 절실하다. 설화를 적극적으로 끌어와서 창작에 활용하려는 작가들의 도전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단지 흥미 있는 소재로 설화를 끌어들이는 데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작품 속에서 역동적으로 기능하도록 과감하면서도 용의주도하게 수용해야 할 줄로 안다.

참고 문헌

- 고시홍, 『해야 솟아라』, 『대통령의 손수건』, 전예원, 1987, 41~64쪽.
- 김동윤, 『현길인 소설의 제주설화 수용 양상과 그 의미』, 『제주문학론』,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8, 300~327쪽.
- 김동윤, 『현대소설의 제주설화 수용 양상 연구—자칭비설화의 수용을 중심으로』, 『비평문학』31, 한국비평문학회, 2009, 99~128쪽.
- 김수미, 『설화와 가족으로 소통시킨 역사와 현실—고은주 장편소설 『신들의 황혼』론』, 『영주어문』13, 영주어문학회, 2007, 213~238쪽.
- 김영화, 『설화의 현대화』, 『변방인의 세계』, 제주대학교출판부, 1998, 47~57쪽.
- 문성숙, 『제주설화의 현대문학적 변용』, 『제주문학』22, 제주문인협회, 1992, 128~142쪽.
- 오성찬, 『구룡이 삼촌 연보』, 『단추와 허리띠』, 지성문화사, 1988, 37~50쪽.
- 오성찬, 『오성찬 문학 선집』11, 푸른사상, 2006.
- 이명인, 『집으로 가는 길』, 문이당, 2000.
- 고은주, 『신들의 황혼』, 문이당, 2005.
- 현용준, 『설문대할망과 오백장군』, 『제주도 사람들의 삶』, 민속원, 2009, 74~78쪽.

Abstract

Modern Novels' Reception
of the Tale of Old Lady Seolmundae

Kim, Dong-Yun*

This study explores how modern novels receive the tale of Old Lady Seolmundae, focusing on three literary works whose frameworks are based on this tale. A summary is as follows:

First, *The Chronicle of Uncle Guryong* by Oh Seong-chan (1986) receives the legend of Old Lady Seolmundae (a mammoth-sized old lady) which is not related to the legend of Five Hundred Generals (petrification legend) and makes utmost use of the "failed-connection-to-the-mainland" motif.

Second, *On the Way Home* by Lee Myeong-in (2000) receives the dramatically modified Old Lady Seolmundae tale which contains the story of Five Hundred Generals along with other Jeju legends

Third, *Twilight of the Gods* by Ko Eun-ju (2005) also receives the story of Old Lady Seolmundae and meaningfully captures the opening of a new world in the tale.

Forth, an aspect of modern novels receiving the Seolmundae tale shows that their archetype is confined to the tale of a mammoth-sized old lady and the "failed-connection-to-the-mainland" motif plays a key role.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Jeju National University

Fifth, warning against the development-oriented society and eco-awareness are the method to literarily represent the Seolmundae tale to be suited for "Present and Here."

Key Words

the tale of Old Lady Seolmundae, the tale of a mammoth-sized old lady, the petrification tale, "connection-to-the-mainland" motif, eco-awareness, *The Chronicle of Uncle Guryong* by Oh Seong-chan, *On the Way Home* by Lee Myeong-in, *Twilight of the Gods* by Ko Eun-ju

교신 : 김동윤 690-7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교 66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E-mail : kdongyun@hanmail.net 전화 : 064-754-2711)

논문투고일 2010. 06. 30.

심사완료일 2010. 07. 25.

게재확정일 2010. 08. 10.